박원자의 母情佛心 ❶ 조계종 11 · 12대 종정 법전 스님



▶ 숙명여대서 중국문학을 전공했다. 대학시절 불교에 입문했고, 동국대에서 역경위원을 역임했다. 1991~1992년 월간 〈해인〉에 '호계삼소'를 연재했고, 1996년부터 12년 동안 同誌에 '나의 행자시절'을 연재했다. 2008년 〈나의 행자시절 1 · 2 · 3〉, 2016년 〈스님의 첫마음〉을 출간했다. 그 외 〈혜암대종사 법어집/1995〉 〈이 땅의 유마 대원 장경호 거사/2005〉 〈길 찾아 길 떠나라/2007〉 〈누구 없는가/2009〉 〈인생을 낭비한 죄/2011〉 〈어떻게 살 것인가/2016〉 등의 저서가 있다.

"道 이루세요" 애착 끊어낸 모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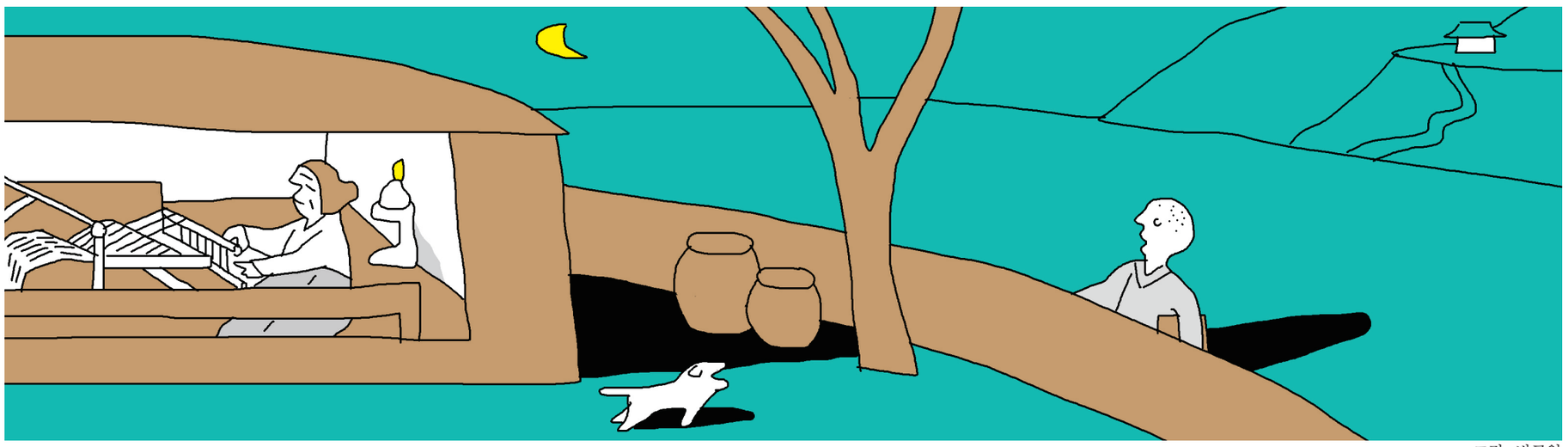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엄마의 모습을 떠올린 날부터 밖에 나가 걷기 시작했다."

세계적인 어느 한국 여류 사업가가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자신만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찾으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한 말이다. 사업에 큰 실패를 하고 두문불출, 열패감에 사로잡혀 있다가 누구보다 자신을 믿어준 어머니를 떠올리고 다시 일어섰던 자신의 경험을 전한 말일 것이다. 우리에게 어머니라는 존재가 어떤 의미인지 깊이 공감하게 한다.

어머니는 그런 존재다. 누가 뭐래도 어머니에겐 자식이 최고다. 전부다. 어떤 경우에도 잘 났다, 못났다 분별하지 않으며 철저히 믿는다. 자식을 위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게 어머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맞바꿀 수 있는 단어가 세상에 있다면 그것은 '불심'일 것이다. 그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은 불성의 마음, 불심. 그 순수함이 자식에게 가 닿아 그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었을 것이다.

나의 경우 몇 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아, 이제 나보다 나를 더 믿고 사랑해주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겠구나' 였다. 자식을 낳아 길러보니 알겠다. 어머니는 내 존재의 뿌리이며 영혼으로 직통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내 생각이 그대로 전해지고 내 모든 게 자식의 것이 되는 것을 보면서, 어머니라는 존재와 역할이 자식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를 깨닫지 않을 수 없었다.

누군가의 어머니가 되고나서 스님들과 인터뷰를 할 때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자연히 더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어떠한 어머니였기에 저리도 훌륭한 수행자를 자식으로 두셨을까. 출가의 길이란 정성을 다하여 키운 자식을 세간 밖의 세계로 보내는 일이며, 어쩌면 영영 이별일 수도 있는 길인데, 어머니들은 어떤 마음으로 떠나보낸 걸까, 그 후의 삶은 어땠을까 등등 많은 상상을 하게 된다.

애착을 끊는 일에서부터 도의 길이 시작된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애착을 놓는 일에 가장 능한 선수들이 출가수행자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스님들은 어머니 이야기가 나오면 동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다. 어느 한 이야기도 따뜻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자식의 은사 스님 앞에서 삼배의 절을 올리며 모쪼록 큰스님을 만들어달라고 절을 했던 어머니, 딸 셋을 모두 출가시키고 나중에 수행자 딸들과 함께 한 철 안거를 나고 세연을 다한 어머니도 계시다. 출가한 아들이 편안한 생활에 안주하려는 기미가 보이자 걸망을 들려주며 어서 이곳을 떠나 더 정진하라고 재촉했던 어머니도 계셨다.

총명했던 자식이 열다섯 어린 나이에 출가해버리자 너무 절망한 나머지 지아비마저 집을 나가고 홀로 자식들을 키우며 온갖 고생을 다했던 어머니가, 세월이 흐른 뒤 출가한 자식에게 던진 한마디는, '니 혼자 부처되면 뭐 하노' 였다.

어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눈시울을 적시던 스님들. 그리도 냉정한 분들에게 어머닌 어떤 존재일까, 그 어머니들은 자식에게 무엇을 전했을까, 거기서 우린 무엇을 배워야할까. 그 물음을 따라 '모정불심(母情佛心)' 의 연재를 시작한다.

"어쨌든 건강하여라" 담담한 한마디

몇 해 전 입적하신 법전 스님(대한불교조계종 11,12대 종정)의 어머니 이야기부터 시작한다. 스님이 회고록 형식의 자서전을 준비하게 되었을 때 원고를 정리하기로 한 인연으로 스님의 일생을 듣게 되는 청복을 누렸다. '절구통 수좌' 라는 별명과 함께 말씀이 없기로 유명한 스님께서 가장 동심으로 돌아간 것은 어머니에 대한 추억을 말씀하셨을 때였다. 세속의 정이란 정은 다 떼어버렸을 스님께서 그리도 세세하고 따스하게 어머니를 떠올리다니,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법전 스님은 14살에 부모님 곁을 떠나 백양사 청류암으로 들어갔다. 속가에 두면 일찍 단명할 거라는 주역가의 말을 듣고 부모님이 내린 결단이었다. 집을 떠나는 어린 아들에게 어머니는 담담하게 한 마디만 했다고 한다. "어쨌든지 건강하게 잘 있어야 한다."

아마도 어머니는 막내아들의 명만을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손을 선뜻 놓지 않았을까. 스님은 그때만 해도 곧 돌아오리라 생각했고, 더구나 아버지는 청류암에 어린 아들을 두고 떠나면서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껴 우는 아들에게 그랬다는 것이다. "울지 마라, 내일 네 어머니와 다시 오마."

순진한 14살 소년은 그 말을 철썩 같이 믿었다. 행자생활이 시작되면서 매일 암자 뒤 산등성이에 올라가 부모님을 기다렸다. 책을 읽다가도 인기척이 나면 번개같이 달려 나갔고,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도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쏜살같이 나갔다가 부모님이 아니면 눈물을 훔치면서 돌아섰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3년 동안을 그러셨다니, 어린

단명한다는 말에 14살에 출가
3년만에귀가 "왔니" 단한마디
모친의 담담함에 사문의 길로
별세 전 "보고싶다" 전갈에도
스님은 토굴을 나서지 않았다

나이에 얼결에 헤어져 얼마나 어머니가 보고 싶었겠는가.

"우리 어머니는 희로애락에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침착하고 강인한 분이셨어요. 밖으로 나돌며 활달하게 사셨던 아버지를 대신해 농사지으며 아들 셋, 딸 하나를 키우면서도 큰 소리 한번 내는 법 없었고, 집안 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한번 하지 않은 분이셨어요."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고 체구가 작은 것은 어머니를 닮았다고 하셨다. 어머니는 농사철은 물론 농한기에도 물레질을 하느라 잠시도 쉴 틈이 없었다. 한 번도 한가롭게 쉬지 못하고 일만 하는 어머니가 안쓰러워 어른이 되면 어머니는 내가 모셔야 하는 생각을 했었다고 한다.

부모님은 3년이 다 되어가도록 한 번도 청류암에 오지 않았다고 한다. 스님은 호남 제일의 율사이자 도인으로 소문난 노스님(묵담 스님)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집에 가고 싶다는 소리를 입 밖에 한 번 내지 못했는데, 어느 날 그만 옆에 행자에게 발설을 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나도 집에 가고 싶다. 엄마가 보고 싶어."

어찌 그 말이 묵담 스님 귀에 들어갔고 곧 노스님 앞에 불려갔다고 한다. 이 장면은 지금도 선명히 떠오르는데, 마치 영화의 한 장면보다 더 리얼하다. 묵담 스님은 3년 전 입고 왔던 저고리를 가져오게 해서 입어보라고 명했다고 한다. 그새 키가 자라 훤히 드러난 팔뚝을 만지면서 말씀했다는 것이다.

"여기 이만큼 드러난 팔뚝이 보이지? 이건 네가 여기 와서 밥 먹고 큰 살이 아니겠느냐. 집에 가려거든 여기 와서 자란 팔을 베어놓고 가거라."

그 후로는 두 번 다시 집에 간다는 소리를 입 밖으로 내지 못했고 정확히 3년이 되는 날, 아버지가 청류암으로 왔고 다음 날 아버지를 따라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반전이다. 그토록 어머니가 보고 싶어 집으로 달려갔을 때, 마침 어머니가 사립문 밖을 나오던 참이었다. 사립문 밖에 서 있는 아들을 보고는 마치 어제 나간 자식을 대하듯 한마디만 했다는 것이다. "기남(스님의 속명)이 왔니?"

그렇게 어머니는 위대하다

그리고는 가던 길을 가시더란다. 그 말씀을 하던 스님의 얼굴 표정을 나는 생생하게 기억한다. 몹시도 서운했을 17살 소년의 마음을 역력히 느낄 수 있었다. 그토록 보고 싶어 3년 동안 하루도 기다리지 않은 날이 없던 어머니가 그렇게 담담하게 대했던 것이 스님에게는 속가에 뜻을 두지 않고 다시 절로 돌아가 정식으로 출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다. 만약 그때 어머니가 정으로 끌어안아 놓아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부질없는 생각을 해본다. 어머니는 그렇게 위대하다는 생각과 함께.

스님은 며칠을 집에 있지 못하고 고향에서 멀지 않은 불갑사로 놀러갔다가 출가했다. 그리고 그때 집을 나온 이후로 부모님을 찾지 않았다. 치열한 정진 끝에 오도를 하고 문경의 깊은 산골짜기에 허름한 토굴을 짓고 선농일치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아버지가 찾아왔다. 어머니가 평소 앓던 가슴앓이 병이 심해져 병원에 일곱 달째 입원하고 있는데 '막내아들을 보고 눈을 감고 싶으니 데리고 오라' 고 남편에게 애원을 한 것이다.

아무리 담대한 어머니라도 죽음 앞에 섰을 때는 열일곱 살 이후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아들이 보고 싶었을 것이다. 그동안 어머니는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집에 있던 두 아들을 모두 잃었다. 게다가 남편은 두 아들을 앞서 보내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절에 들어가 출가자처럼 살고 있었다. 얼마나 가슴이 콱콱했겠는가. 그러나 그날 밤 스님은 밤새 생각 끝에 어머니를 뵈러 가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너무 오랫동안 보지 못하던 아들을 보면 섶에 불붙듯 자식에 대한 애착이 더해진 채 세상을 떠날 것인데, 결코 어머니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란 생각에 그런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아버지는 갈 수 없다는 자식의 모진 말에 '범소유상 개시허망(凡所有相 皆是虛妄)' 이란 〈금강경〉의 한 구절을 내뱉고는 산을 내려갔다고 한다. 그리고 스님은 곧 조카에게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편지를 받았다. 물론 토굴 밖을 나서지 않았다.

출가해서 공부하려면 부모 형제를 원수처럼 알아야 한다는 자신과의 약속을 어길 수는 없었다고 하셨다. 출가수행자로서는 그것이 부모의 은혜를 갚는 길이며, 만약 작은 정에 이끌리게 되면 자기는 물론 부모까지 지옥으로 인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스님의 신념이었던 것이다.

나는 이쯤에서 생각해본다. 수행자로서 스님은 그렇다 치고 스님의 어머니는 어떠셨을까. 끝내 얼굴 한 번 보여주지 않은 비정한 아들을 두고 눈을 감은 어머니께선 과연 애착을 끊으셨을까? 그리도 큰 도인을 낳은 어머니셨으니 고래 심줄보다 더 질기다는 애착을 끊고 천상에 나셨으리라. 냉정하기 짝이 없었던 아들 때문에 깨달음을 이루었던 저 중국의 황벽선사 어머니처럼 말이다.

생각이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라고 한다. 오죽하면 지극한 도는 미워하고 사랑하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그 자리에 있다고 했겠는가.

어머니라는 존재가 내 생명의 근원이기도 하고 어머니로 인해 자식이 세상이라는 장에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지만, 기묘하게도 수행자에게 어머니는 사랑을 끊는 첫 번째 대상이기도 하다. 어머니 입장에서도 애착을 끊어야 진정한 어머니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세상의 어머니들 모두가 애착이 끊긴 순수무잡의 불심으로 돌아가고자 공부하는 것이 최상의 답이 아닐까 싶다.

2021 謹賀新年 신축년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

조 실 현봉 근일
회 주 남전 호성
주 지 등운

최치원문화관 사부대중 일동

부 주 지 정우 화엄승가대학원장 등현 총무국장 도륜
기획국장 도선 교 무 국 장 혜림 재무국장 덕암
사회국장 함흥 호 법 국 장 등화 포교국장 성민

산하기관 안내

선재어린이집 054) 855-6033
풍기어린이집 054)636-8016
안동청소년문화센터 054)841-2324
의성군노인복지관 054)861-1377
안동시장애인종합복지관 054)855-7801
재단법인 고운청소년재단 054)841-2324
안계노인복지관 054)862-7900
봉현어린이집 054)637-5179
연꽃어린이집 054)673-09108
영주시장애인보호작업장 054)633-6414
고운실버노인요양원 054)833-5900
영주시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054)634-3251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054)633-6415
최치원문화관 054)834-8200
의성지역재활센터 054)833-1225

경북 의성군 단촌면 고운사길415(구계리1166) | www.gounsa.net
Tel 054)833-2324 템플스테이 054)822-6933



▲ 고운사 소장 동자

2021 謹賀新年 신축년



밀랍초

(주)선우아이비오에서는 우수성이 이미 널리 알려진 천연 밀랍 양초, 소이 양초를 개발, 유통중에 있습니다.
소량의 밀납 성분이 함유된 이름만 밀납양초가 아닌 천연 밀랍 100% 로 만든 티라이트 양초, 자갠들(유리병초),
연꽃초와 향료, 색소 등을 일체 첨가하지 않고 천연밀랍과 파라핀을 혼합한 원기둥, 밀대 등을 개발하였습니다.

주식회사 선우아이비오 |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141 (쌍문동) | TEL .02)998-7940
선우몰 www.sunwoomall.co.kr | sunwooibo@hanmail.net